

‘영성’은 ‘불성’의 동의어, 사람의 보편적 성품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①

불성과 영성

<수심결(修心訣)>은 고려시대 보조 국사의 저술이다. 제목처럼 마음 닦는 비결을 적은 어록을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 원장 인경 스님의 특강이 마련됐다. 강의는 ‘불교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체험을 하는가’를 주제로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명상상담연구원에서 열린다.

인경 스님은 “<수심결>은 마음 닦는 비결을 제시한 책으로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강의에서는 대승불교에 기초한 간화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성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인경 스님의 특강을 8주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수심결(修心訣)>은 ‘마음을 닦는 비결’이란 뜻이다.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한 보조 국사(1158~1210)는 40세가 되던 해(1197)에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간화선을 창도한 <대혜어록>을 보고서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수심결>은 대혜선사의 어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상무주암에서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어록이 출현했지만, <수심결>은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한 대장경에도 등재가 돼 있고, 많은 선각자들이 <수심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례가 보고됐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국내에서는 단일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와 번역과 강의가 이뤄졌고, 대만에서도 역주작업을 통해 출간됐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버스웰 교수에 의해서 美 하와이대에서 영어로 번역됐다. 명상에 기초한 스트레스 완화(MBSR)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존 카밧진(Jon Kabat-Zinn) 같은 심리학자들도 <수심결>을 인용하고 있다.

<수심결>의 어떤 점·무엇이 이런 역사적인 관심을 지속시켰을까? 필자가 보기에 는 깨달음의 사상적 기초와 구체적인 방법의 핵심이 간명하면서도 쉽게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심결>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승불교의 불성과 간화선의 수행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진 까닭에 새롭게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많은 번역이나 연구의 방향과 대동소이하다면, 여기서 특별하게 강론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점이다. 전체적인 기초나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필자는 <수심결>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설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오랜 대승불교의 전통적 사상인 불성과 간화선이 보다 현실적인 답안이 되고, 오늘의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다.

1. 불교에서의 영성

<수심결>의 핵심된 사상은 불성이다. 이것은 <수심결>이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맥락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불성, 곧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점을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불성은



<수심결> 특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 강의는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영성(spirituality)’이다. 오늘날 영성(靈性)이란 용어는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영성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물론 영성이란 낱말은 불교 경전이나 논서와 선어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영성을 불성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러한 <대보적경(大寶積經)>에서는 ‘여래께서 깨닫힌 전안으로 관찰하시니, 일체의 무량한 불토에 모두가 영성(靈性)을 가지고 있음이라[一切無量佛土諸善靈性]’고 말한다. 여기에 따르면 모든 불토에서 영성은 불성과 동의어로서, 모든 생명체에 갖춰진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보적경>은 120권으로 당(唐) 시대(706~713)에 보리유지(菩提流志)에 의해서 한역됐다.

기독교에서 ‘영성’ 단어를 처음 사용한 기록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1441년경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교에서의 ‘영성’ 사용이 상당히 빠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영성’이 선어록에 사용된 경우는 북송대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가 지은 <종경록(宗鏡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평등한 법성의 묘한 마음은 성문이나 연각과 보살 및 모든 부처에게 함께 갖춰져 있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생하는 것은 이 영성(靈性)이 생각의 장소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마다 영성을 함유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나타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생각 생각에 따라서 윤회하는 까닭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모두 동일한 영성을 갖고 있지만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논서는 이통현 정자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에 나온다. “수행해 승진하고 집진적으로 그 지혜가 영성(靈性)에 통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영성이 수행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명상수행의 궁극의 목표가 영성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 이해하는 영성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품이지만,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각 생각에 윤회하는 까닭이며, 명상수행이 본래 청정한 영성에 도달하는 좋은 접근방식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불교에서는 ‘영성’은 ‘불성(佛性)’과 동의어로서, 법성(法性)·자성(自性)·본성(本性)과 함께 사용한다. 불성은 부처의 성품인 까닭이고, 법성은 모든 형상의 본질이며, 자성은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성품이고, 본성

은 본래부터 갖춰진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영성은 불성과 동의어로서 불교의 핵심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심리학에서의 영성

전통적인 심리학이 세속적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집중한다면, 최근에 대두되는 영성심리학·초월심리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신성하고 거룩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97년 이런 동향을 인정해 인간의 건강을 몸·마음·사회건강이라는 기존 관점에서 ‘영성건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첨가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의 결여가 건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해 역동적인 온전한 상태로서의 웰빙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된 영역은 바로 영적(spiritual)인 측면이다. 영적 측면이란 특정한 종교 영역

<수심결>은 영향력 큰 대표 어록 깨달음의 핵심 쉽게 제시 ‘영성’은 불교서 먼저 사용 기독교 1441년경 처음 사용

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본성이고 보편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건강 개념이 변화한 것은 그동안의 심리학적 연구성과가 반영된 까닭이다.

심리학자들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영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성과 관련한 새로운 경향의 심리학과를 기존 심리학과인 정신분석, 인지행동, 인본주의에 상대해 제4세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성의 개념이 이들 학파와 별개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 보니 영성에 대한 접근방식이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성개념이 자리 잡는데 기여한 주요 심리학과의 대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정신분석에서 분파한 칼 융(Carl Jung)이 있다. 프로이트는 영성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명상이나 영성체험을 퇴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융은 원형(archetype)이라는 영적인 어떤 원리를 인정했다. 이때의 원형은 바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적인 자기이다. 이런 자기(Self)의 개념은 인도의 아트만(ATman) 개념과 유사하다. 융에게 있어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수심결>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했다.

자기(Self)는 정신의 전체성이고, 참 본질로서 초월적인 요소이고, 초월적인 자아로서 자기인격의 궁극적인 개아이다. 융은 신체[身]가 감각과 정서로 마음[心]이 생각과 개념들로 구성된다면, 영혼[靈]은 제3의 관점에서 이것들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융은 영성을 영혼(soul)과 정신·마음(psych)과 동의어로 함께 사용했다.

인본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영적 체험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물인 매슬로우(maslow)이다. 매슬로우 역시 종교적인 관심을 병적인 증후라는 프로이트에 반대했다. 그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적극적으로 영적 가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햇살·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며 “이것들은 종교단체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경험을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이라고 불렀다. 이런 신비적인 경험상태가 앞으로 심리학의 개척분야임을 강조한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1969년 자아초월 심리학회회가 발간되는 결실을 맺었다.

영성체험을 중시하는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적 관점에서

있는 심리치료자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영성체험을 유도하고 영성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존 심리치료와는 매우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기존의 종속적인 의사-환자나 교사-학생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영적인 동반자로서 묘사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성장을 목표로 한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지 는 개인의 고유한 문화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독교가 영성을 초월적 존재와 그에 대한 믿음에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불교는 초월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내적인 자질이나 성품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전체를 갖고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적인 본성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현실을 중시하는 명상과 심리학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 구체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수강안내 02)2236-5306

불교인재 양성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배우이란 마리너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9년 역사와 그 비랑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2년 동산불교대학 40기 신입생 모집

1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무진장 대중사(본대학학생, 최홍석 교수(금강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윤열수 교수(동국대), 할만 스님(동산대), 최봉수 교수(대원대), 김형준 교수(동산대), 오주 스님(동국대)
2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범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황승일 교수(동국대), 자차석 교수(동명대),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중 교수(동산대), 주영철 교수(동명대), 정업 스님(승가대), 종석 스님(승가대), 보각 스님(승가대)

◆ 모집인원 : 불교학과 180명(토요반, 목요일, 통산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학료 25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불교학과 / (2012년 1월 2일 ~ 2012년 2월 4일)

◆ 입학일시 : 불교학과 / 2012년 2월 4일(목)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개강)

◆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처 711. 02-732-1206-8 Fax. 02-732-1207 (9)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